

《대동운부군옥》의 구성체계와 그 특징

리진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책들에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 38페이지)

《대동운부군옥》은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형식을 가진 사전유산으로서 1589년에 권문해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대동운부군옥》에 반영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내용은 그 구성체계를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의 구성체계는 서문, 발문, 《해동잡록》 발문, 목록, 류목, 범례, 찬집서적목록, 본문의 차례로 되어있다.

《대동운부군옥》의 앞부분에는 정범조가 쓴 서문, 김응조가 쓴 발문, 홍여하가 쓴 《해동잡록》의 발문이 올라있다.

목록은 상평, 하평, 상, 거, 입성의 운자순서를 밝히었으며 류목은 지리(地理), 국호(國號), 성씨(姓氏), 인명(人名), 효자(孝

子), 렬녀(烈女), 선명(仙名), 목명(木名), 화명(花名), 금명(禽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개 조항의 일러두기로 된 범례와 찬집서적목록이 붙어있는데 거기에는 저자가 이 책을 편찬하면서 참고한 우리 나라 책 174종(속집, 부록 등을 합하면 180여종)과 중국 책 15종의 제목이 소개되어있다. 찬집서적목록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대동운부군옥》의 편찬에 참고한 도서들중에는 우리 나라 책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한다.

본문은 6 100여자의 한자를 올림자로 선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2 560여개의 올림말을 수록하고있다.

본문은 한자를 상평, 하평, 상, 거, 입성의 운에 따라 배열하고 같은 운자로 된 말들에 설명을 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대동운부군옥》의 매 권들에서 올림자와 올림말들의 수록정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본데 의하면 다음과 같다.

권별	장수	올림자수	올림말수	성씨수
권1	37	164	677	8
권2	64	381	1 223	13
권3	61	354	1 110	41
권4	74	354	1 328	30
권5	59	367	1 121	22
권6	68	349	1 229	27
권7	56	256	1 061	8
권8	63	314	1 085	43
권9	61	274	1 083	33
권10	55	257	973	16
권11	64	359	1 151	12
권12	61	324	1 117	12
권13	59	301	1 074	10

권별	장수	올림자수	올림말수	성씨수
권14	60	331	1 142	6
권15	60	299	1 096	7
권16	54	292	988	1
권17	66	336	1 219	14
권18	64	336	1 157	20
권19	60	419	1 120	4
권20	79	465	1 449	6

표에서 보는것처럼 《대동운부군옥》(20권 20책)에는 6 532자의 올림자, 22 403개의 올림말, 333개의 성씨가 수록되어있다. 여기서 성씨도 올림말로 본다면 올림말의 수는 도합 22 736개에 달한다. (이 책에서는 성씨도 다른 올림말들과 같이 올림말로 올리고 해설하였다.)

《대동운부군옥》의 올림자 6 532자를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일부는 같은 한자가 반복되어 올라있음을 발견할수 있다.

실례로 한자 《假》는 권11 6장과 권16 47장에 두번 반복하여 올림자로 올라있고 한자 《句》는 권8 26장과 권14 4장, 권17 55장에 세번 반복하여 올림자로 올라있으며 한자 《行》은 권6 66장, 권7 13장, 권17 14장, 권17 24장 등에 무려 네번 반복하여 올림자로 올라있다.

《대동운부군옥》에 두번 반복하여 올림자로 오른 한자는 314자이고 세번 반복하여 오른 한자는 11자이며 네번 반복하여 오른 한자는 1자이다. 그것은 《대동운부군옥》이 한자운서의 올림자배열방식을 따라 올림자들을 배열한것과 관련된다. 운서들은 두가지이상의 소리를 가지거나 두가지이상의 성조를 나타내는 글자는 각각 해당하는 부류에 포함시켜놓음으로써 같은 한자가 여러번 반복하여 수록된다.

따라서 《대동운부군옥》의 전체 올림자들가운데서 반복하여 올라있는 올림자들을 고려하면 6 100여자의 한자(구체적으로 보면 6 193자)가 올림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의 올림말에 대하여서도 성씨까지 포함하면 22 736개이지만 일부 성씨들은 같은 한자를 쓰는 성씨이므로 올림말의 개수를 확정하는데서 고려하여야 한다.

《대동운부군옥》에는 성씨(姓氏)라는 표식이 된 올림말이 333개이지만 그중에서 대부분의 성씨들은 같은 한자를 쓰면서 본(관향)이 다른 성씨들이다.

실례로 《김씨》(金氏)인 경우에는 다같이 한자 《金》자를 쓰지만 그 본은 《강릉》, 《경주》, 《광주》, 《례안》, 《부안》, 《상산》, 《서흥》, 《선산》, 《수원》, 《순천》, 《안동》, 《언양》, 《연안》, 《영산》, 《원주》, 《의성》, 《청도》, 《청풍》, 《풍산》, 《함창》, 《해평》 등 수십여가지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또한 각각 다르다. 《리씨》, 《박씨》, 《최씨》 등 다른 성씨들인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씨를 올림말로 보는 경우 같은 한자를 쓰는 성씨는 그 본(관향)에 대한 해설도 같은 올림자아래에 수록되어있으므로 올림말로서는 하나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성씨라는 표식이 된 올림말이 모두 333개이지만 실체는 149개의 올림자에 해당하는 올림말이므로 성씨 올림말도 149개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 이 책에 올라있는 올림말이 모

두 22 552개가 되므로 《대동운부군옥》에는 22 560여개의 올림말이 수록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은 구성체계에서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대동운부군옥》의 구성체계에서의 특징은 첫째로, 운서와 류서의 형식이 합리적으로 결합된 새롭고 독특한 형식을 이루고있는것이다.

《대동운부군옥》은 우선 운서의 형식으로 편찬된 책이다.

《대동운부군옥》이 운서의 형식을 갖추고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이 책의 서문에 명백히 지적되어있다.

《대개 단군이후부터 본조(조선봉건왕조—인용자)에 이르기까지 수천년간의 사실들을 포괄하여 광범히 탐문해서 수집해가지고 국내의 모든 산천, 군국, 풍속, 토산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운서로 된 공납서(지리서—인용자)이며 인간도덕의 순종과 거역, 나라정사의 성패를 기재하지 않은것이 없으니 이것은 운서로 된 력사서이며 력대의 중요한 인물들의 언행과 업적을 련거하지 않은것이 없으니 이것은 운서로 된 명신록이며 국내의 공적 및 사적인 문헌들과 여러 학자들의 문집 및 외국의 문헌으로서 조선에 관계되는것은 참고하지 않은것이 없으니 이것은 운서로 된 예문지(도서목록 및 해제에 관한 저서—인용자)라고 할수 있다.…」*(《대동운부군옥》 정범조서 참고)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대동운부군옥》은 운서의 형식을 갖추고있다.

운서란 한자의 소리를 위주로 해설한 한자자전을 말한다.

《대동운부군옥》은 모든 한자를 106운 체계에 의하여 나누고 한자의 뜻을 해설하였으며 해당한 운목에 속하는 글자들이 끝자로 결합되는 한자어휘들을 한곳에 배열하고 풀이한 사전이다.

《대동운부군옥》은 또한 류서의 형식으로 편찬된 책이다.

류서는 여러가지 책들에서 자료를 추려서 일정한 체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사전류형의 옛날책을 말한다.

《대동운부군옥》이 류서라는것은 18세기 후반기에 편찬된 《증정문헌비고》에서 처음으로 《초집류》에 분류한것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다시말하면 《대동운부군옥》은 《운부》라는 그 이름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한자의 운을 찾는데 리용되는 운서의 기능에 주되는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물현상과 사건, 사실 등을 찾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는 류서이다.

류서는 학문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쉽게 푸는 한편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엮은것인데 여기에는 글자(운)에 따라 분류하여 묶은것과 사물현상 및 사건들을 문제별로 분류하여 묶은것 즉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부류의 대표적인것으로는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1588년)이 있으며 둘째 부류의 대표적인것으로는 리수광의 《지봉류설》, 리익의 《성호새설류선》 등이 있다.

《대동운부군옥》은 올림자와 올림말들을 한자운자에 따라 분류하여 묶은 류서로서 사물현상 및 사건들을 문제별로 분류하여 묶은 《지봉류설》이나 《성호새설류선》 등의 류서들과 그 형식에서 완전히 다르다.

문목으로 된 류서 즉 문제별항목으로 배열된 류서는 그 검색이 대단히 불편하며 운목으로 된 류서는 그 검색이 문목으로 된 류서보다는 한결 편리하다. 특히 운목으로 된 류서에는 비교적 현대사전에 가까운것이 있다.

운목으로 편찬된 우리 나라의 류서들 가운데서 사전에 비교적 가깝게 도달한것은

오직 《대동운부군옥》이 있을뿐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전편찬력사상 《대동운부군옥》 편찬이전에 벌써 운서나 옥편 등 한자사전들이 있었으나 어휘까지 수록한 사전으로서의 《대동운부군옥》과 같은 저작은 없었던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을 우리 나라 단군 이래 조선봉건왕조 선조통치년간에 이르는 수천년간의 역사적기간을 포괄한 종합적이며 백과사전적인 한자어사전이라고 볼수 있으며 조선의 역사, 문화, 인명, 지명, 언어, 문학, 예술, 박물사전으로도 쓰일수 있는 각 방면의 풍부한 내용을 담은 백과사전적 도서라고 규정할수도 있다.

《대동운부군옥》의 구성체계에서 특징은 둘째로, 올림자(단자)와 올림말(자모)들을 모두 운목순, 자류순으로 편찬하였으므로 우리 나라 류서문헌들중에서 사전 및 백과사전체제에 가장 가까우며 검색을 부수로 구별한 자전들이나 현대의 백과사전들에 못지 않게 편리하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사전 및 백과사전적인 저작으로서의 형식과 그 규모의 방대성에서는 《고금석림》과 《지봉류설》을 《대동운부군옥》과 직접적으로 대비할수 있을것이다.

《고금석림》은 동방 여러 언어의 어휘와 리두자료를 풍부히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중세 언어연구의 가치있는 사료로 되지만 그 해석이나 인용에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더우기 문목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검색이 매우 불편하다.

《지봉류설》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실학자 리수광이 저술한 류서로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실사구시적인 실학의 립장에서 반영하였지만 《고금석림》과 마찬가지로 문목으로 편찬되었기때문에 검색이 불편하다.

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 올림말배열을

합리적으로 하고 출처를 밝히며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것은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동운부군옥》은 우리 나라 류서들중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색인형식과 정연한 사전체제를 갖춘 유일한 류서의 대작으로서 내용과 형식이 부합되게 백과사전적인 면모를 비교적 훌륭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의 구성체계에서의 특징은 셋째로, 비록 다른 나라에 이미 있는 형식을 리용하였으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있다.

그것은 우선 《운부군옥》의 체계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효자》, 《렬녀》 등의 류목을 창발적으로 새로 설정하였는가 하면 《활투》, 《대어》, 《류어》 등 형식적인 류목들은 애당초 설정하지 않은것을 비롯하여 그 형식도 더 발전시킨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이 책이 편찬당시에 이미 고어로 되어버린 세나라시기의 고유한 우리 말들과 함께 새, 꽃, 나무 등의 고유어 이름들 그리고 《설부》(중국 명나라때의 류서) 등에 소개되어있는 우리 말 고유어들까지도 수록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처럼 《대동운부군옥》은 한문으로 편찬되었으나 체계에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의 고사, 성어, 시구만을 수록한 《운부군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대동운부군옥》은 편찬되자마자 당대 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17세기이후 류서형식의 문헌편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대동운부군옥》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중요민족고전들에 대한 번역편찬사업과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라와 민족의 재보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